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		
문의	전시 : 조권진 학예연구사 t.031-201-8546 m.010-3437-3020 취재 : 한누리 학예연구사 t.031-201-8545 m.010-3478-1220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1. 11. 25.	쪽수	총 7 매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Nam June Paik Art Center Prize Winner's Exhibition



CAMP 미디어의 Media Promises 약속 이후 2021.11.25———2022.2.27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작가전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

- ▶ 미디어 기술이 “약속”했던 전망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그 “이후”를 다르게 도모하는 개방적 협업
- ▶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각지에서 제작한 주요 영상과 작업을 대규모 “무빙 파노라마” 설치의 비디오 에세이로 제시
- ▶ 백남준이 예술 매체로 개척한 CCTV 카메라로 새로운 영화 만들기를 실험하는 서울 신작과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

■ 전시개요

- 전 시 명 :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¹⁾
- 전시기간 : 2021. 11. 25. (목) – 2022. 2. 27. (일)
- 전시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제2전시실
- 기 획 : 김성은
- 진 행 : 조권진
- 참여작가 : 캠프(CAMP)
- 협 력 : 서울익스프레스, 최태운 스튜디오, 0x2620, 대림상가아파트자치관리위원회
- 주최·주관 :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문화재단
- 후 원 : 독일문화원
- 협 찬 : 산돌구름

■ 전시소개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는 오는 11월 25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를 개최한다.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2020년 수상작가인 캠프는 인도 뭄바이에 기반을 둔 협업 스튜디오다. “CAMP”라는 이름은 4개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코딩으로 추출하여 조합하는 것으로, “마법 같은 가능성을 지닌 창작하기(Creating As Magical Possibilities)”, “미시적 힘에 의한 공유지(Commons According to Micro Power)”, “컴퓨터 예술 혹은 윤리적 정치(Computer Art or Moral Politics)”처럼 만들어진다. 이러한 약어의 가짓수는 십만 개가 넘지만 작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조어들의 예시에서 드러나듯 캠프는 여러 작가들이 다양한 시민, 기술자 등과 개방적으로 협업하며 미디어의 문턱을 낮추는 참여적 작업을 통해 사회 시스템과 기술 하부구조를 탐문한다.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과 힘을 합쳐 이들의 에너지로 테크놀로지의 새로운 전환 가능성을 표명하고자 하는 캠프의 작업은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자본의 권력에 맞서 지역사회와 수공의 협력으로 공공·공동·공유의 개념을 재설계해 나간다.

전시 제목인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도 두문자어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캠프”는 작가명이자 “진영”이라는 보통 명사의 뜻도 될 수 있다. 작가들은 거대 미디어 인프라가 우리 삶과 가치 체계를 빈틈없이 지배하고 있는 오늘날 네트워크 미디어 환경에서 그 매체 기술들이 약속했던 전망에 개입하여 다른 여지를 만드는 “이후”를 제안한다. 전기와 에너지, 교통과 교역, 텔레비전과 라디오, 영화와 비디오, 인터넷에 이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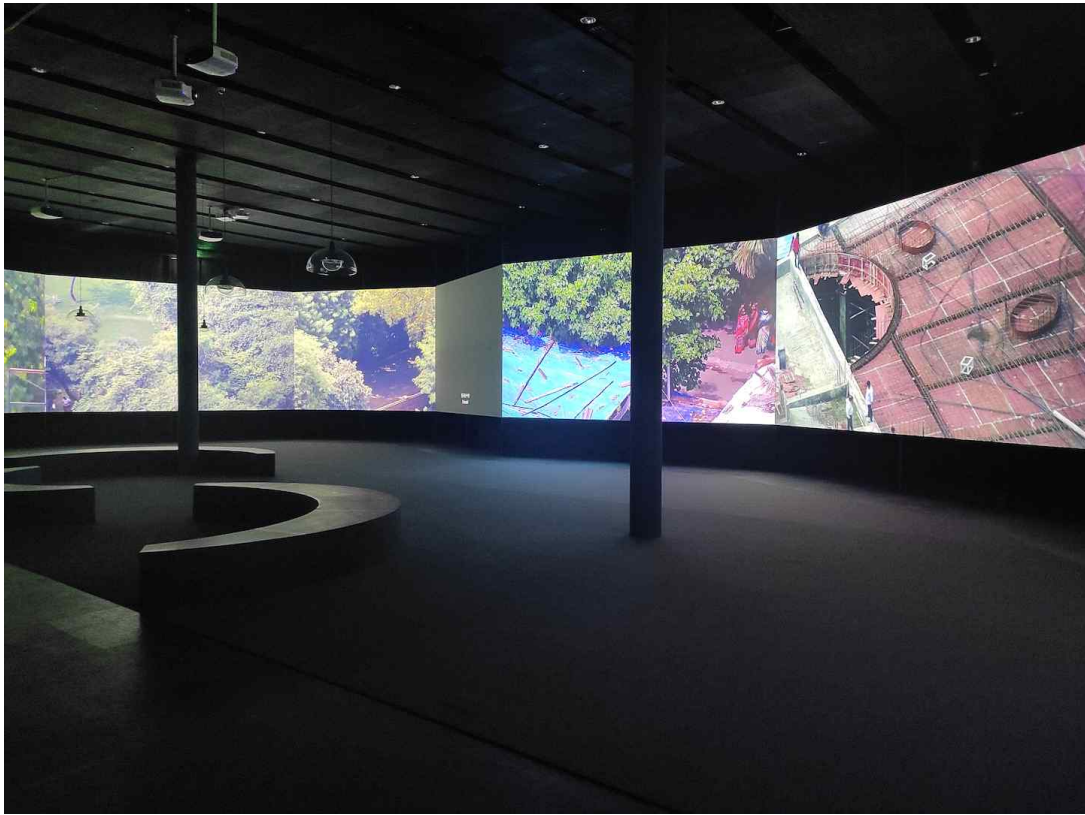
1) 국영문 항상 병기

기까지, “미디어”는 우리를 둘러싸고 지탱하는 “환경”이다. 그래서 각종 미디어들이 약속한 세상에 도달했을 때 그 미디어 기술이 독점적이고 권력적인 구조로 작동한다면 그 기술들의 이 후를 다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어떤 여지를 도모하는 작은 개인들이 모여 자율적인 진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캠프의 작업이다. 백남준아트센터의 전시는 캠프의 주요 작품들을 대형 스크린의 파노라마로 펼쳐 놓는 스크리닝, 서울에서 폐쇄회로 카메라로 촬영하는 신작의 라이브 스트리밍, 백남준아트센터 비디오 아카이브에 대한 파일럿 프로젝트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섹션을 웹 플랫폼 njpcamp.kr에서도 접속할 수 있다. 《캠프, 미디어의 약속 이후(CAMP After Media Promises)》는 미술관, 시네마, 아카이브, 웹사이트가 전형적인 쓰임새에서 벗어나 서로 교차하며 플랫폼 간에 “시프트”가 일어나는 전시이자, 미디어로서 전시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경험하는 현장이다.

■ 작가 소개

캠프는 샤이나 아난드(Shaina Anand)와 아쇼크 수쿠마란(Ashok Sukumaran), 산제이 반가르(Sanjeey Bhangar)가 주축이 되어 2007년 결성하였다.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으면서 몸으로 직접 부딪혀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캠프의 프로젝트는 에너지, 통신, 운송, 감시 시스템, 항구, 선박, 아카이브 등 다양한 사회적, 기술적 집합체를 다룬다. 캠프는 고정된 기능이나 운명을 지닌 기술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빈틈이 있으며 논쟁적인 기술의 면들을 보여주며 테크놀로지를 예술적 활동의 매체와 무대로 삼는다. 캠프의 작업은 인도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샤프자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뮌스터 조각프로젝트 등 세계 유수의 미술 현장에 소개되었다. 여러 도시의 시장과 거리에서도 작품을 선보였으며, 근거지인 뭄바이 추임마을에서는 15년 동안 옥상 극장을 운영하고 있다. (studio.c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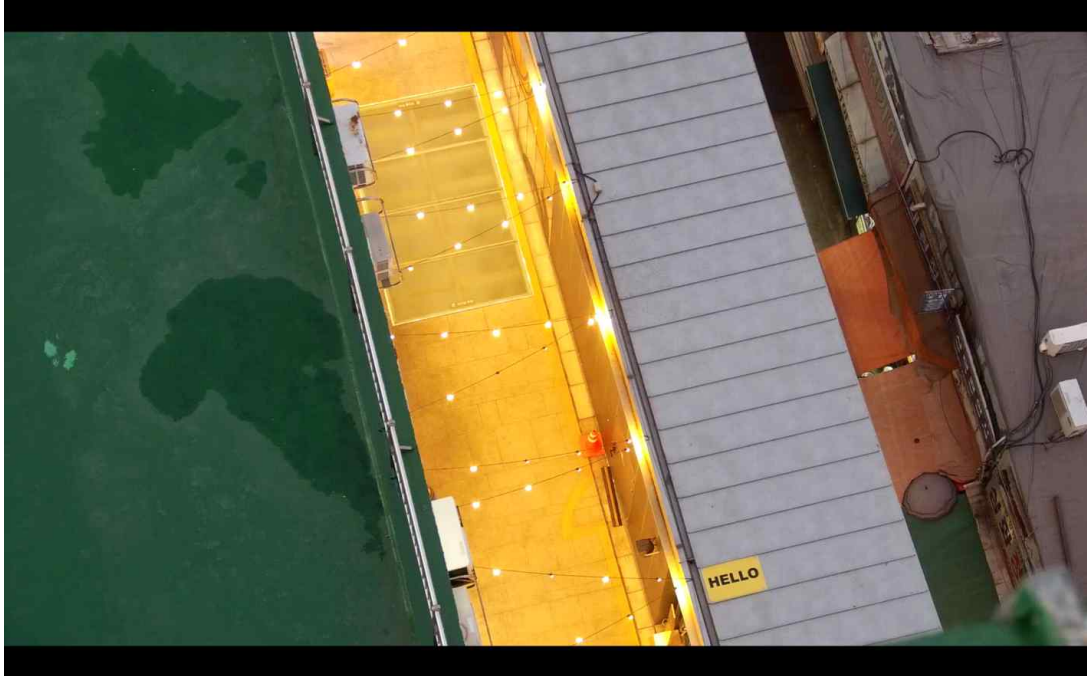
■ 작품 이미지



8-채널 무빙 파노라마 비디오 에세이 백남준아트센터 설치(부분)

무빙 파노라마

뭄바이, 맨체스터, 예루살렘, 카불, 샤르자 등 세계 여러 도시에서 그동안 캠프가 작업한 주요 작들이 극장처럼 조성된 전시실에서 대형 스크린들의 무빙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미술사에서 원래 파노라마는 19세기 원형의 움직이는 캔버스에 그린 풍경화로 360도 뷰를 제공함으로써 일종의 가상현실처럼 관람자가 풍경 속에 있는 경험, 여러 장소를 여행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치였다. “도시는 거대하고, 이미지는 (여전히) 자그마하다.” 캠프는 다양한 도시의 특수한 맥락에서 낯선 방법론으로 미디어를 사용한 기존 작품들을 이러한 무빙 파노라마 형식을 빌려 7막의 비디오 에세이로 연출한다. 0. 비디오 이후의 도시 • 1. 전기의 시간과 공간 • 2. TV 정치학 • 3. 사회적 CCTV • 4. 누설 • 5. 그레이 박스, 브라운 보트, 그리고 바다 • -1. 회귀. 각 작품들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파노라마 고유의 시점 변화를 따라가며 전개되는 영상은 또한 전시란 무엇인가라는 캠프의 문제의식과도 연결된다. 여덟 개의 스크린은 개별적으로 작품을 상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기화되어 42분 동안 이미지, 사운드, 텍스트를 주고받으며 관객에게 색다른 몰입감을 선사한다.



2021년 11월 23일 서울 라이브 스트리밍, CCTV.camp 스틸 이미지

카메라의 라이브 안무

“사람보다 카메라가 더 많은 이 시대에 영화란 과연 무엇일까?” 이번 전시를 위해 서울에서 제작한 신작에서 캠프는 구도심과 도시재생이 공존하고 있는 을지로의 대림상가 건물 옥상에 무인으로 작동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를 세우고 그 카메라의 동작을 안무하듯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제어하며 주변 지역의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낸다. 팬, 틸트, 줌 기능을 이용하여 다양한 거리와 속도로 움직이는 카메라는 운동성, 율동감을 갖고 도시 경관을 포착한다.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지는 영상이 실시간으로 상영됨으로써 전시실과 을지로는 하나의 시공간을 이루게 된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은 cctv.camp에서도 볼 수 있다. 백남준이 1960년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예술 매체로 개척한 지 60여 년이 흐른 지금, CCTV 카메라로 새로운 영화 만들기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이 작업을 위해 서울에서는 최태운 작가와 서울익스프레스의 전유진, 홍민기 작가가 협업하였다.

(촬영: 서울 을지로 157, 2021. 10. 15. - 2022. 2. 27.)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 소장 비디오에 대한 온라인 아카이브 njp.ma 웹 화면,
캠프와 pad.ma 협력

비디오 아카이브에 대한 제안

캠프는 베를린 0x2620의 얀 게르버와 함께 개발한 미디어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백남준아트센터 아카이브에 소장된 비디오들을 가공, 분석하여 이번 전시에서 공개한다. 0x2620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와 웹 애플리케이션은 시간 기반 주석 달기, 타임라인 뷰, 에디트와 코멘터리 기능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비디오 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포맷의 영상 소스와 푸티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분해하여 상세한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캠프는 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비디오 아카이브 pad.ma(Public Access Digital Media Archive, 2008)를 시작으로 인도영화사에 관한 indiancine.ma(2013), 아시아아트비엔날레의 비디오 프로그램인 phantas.ma(2021) 등을 운영해 왔다. 장기간 지속하는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비디오가 기록과 수집만이 아니라 토론과 교류와 연구의 매체로서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njp.ma는 세계 유일의 백남준 비디오 아카이브를 미술관 자원으로 오픈 소스화 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파일럿 프로젝트이다.

■ 전시개막 프로그램

- **렉처 퍼포먼스 “파노라마 워크스루”**: 캠프(샤이나 아난드, 아쇼크 수쿠마란)
 - 일시 : 2021. 11. 25. (목) 15:00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전시실, 순차통역 제공
 - **대담 “폐쇄회로 카메라의 예술”**: 캠프, 최태윤, 서울익스프레스(전유진, 홍민기)
 - 일시 : 2021. 11. 25. (목) 16:00
 - 장소 : 백남준아트센터 2층 전시실(블랙박스), 사전 신청 접수, 순차통역 제공
- ※ 자세한 내용은 백남준아트센터 홈페이지 확인 njpartcenter.kr

■ 관람안내

- 관람 : 무료, 단체는 사전예약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관람종료 1시간 전 입장마감
- 휴관 :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1월 1일, 설날